

의무 없는 특권은 없습니다.

● 본문말씀: 로마서 3:1-8

- 1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 2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 3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 4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 5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 하시나
- 6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 7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 8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 관찰하기

할례도 율법도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미리 선택받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2절). 그러나 택함을 받고도 율법을 아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삼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유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혜택은 무엇인가요? (1-2절)
2.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왜 옳은가요?(3-4절)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불의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왜 옳은가요?(5-8절)

● 나아가기

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말씀을 맡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녀답게 내가 가진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